무덤 쓰고 지키기, 만사의 비책

(마27:57~66)

57.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59.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61.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62.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63.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5.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무덤 쓰고 지키기, 만사의 비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내용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을 시켜 지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리마대사람 요셉은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고 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할 만한 사항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예비해 두었던 자기 집안의 무덤에 예수님을 절차를 따라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장사를 지내고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에다가 시신을 묻고 흙으로 덮는 게 아니라, 절벽 같은데 나있는 동굴에다가 시신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입구를 돌로 막는 것인데, 그렇게 장사를 지낸 뒤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걱정을 하게 된 모양입니다.

제자들의 무리들을 향하여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성경 신학자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 참 재미있지요? 그런 삼류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필요가 없지요.
근데 말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언한 것을 어떻게 알았다는 것이냐, 언제나 제자들의 무리들만 놓고 얘기를 했는데…'라고 말을 하면서, '이들이 부활할 것을 알고, 부활예언을 알고 빌라도에게 가서 이러한 의논을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참 불행한 거지요, 그 좋은 머리를 이렇게 꼼수에 다 소모해 버리고 마니까…

지금 바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회원이에요.
이렇게 제자라면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제자의 연줄연줄 몰려다니는 군중과 무리 속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예언을 하신 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 유월절 명절에 유일한 관심사는 예수님을 죽이고 그 예수님의 뒤처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신기하지요? 그런 추측을 해 낸다는 것이.
참 박복한 인생들이지요, 주석 책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주석 책에도.
루터파에 속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괴팅겐에 있을 때 젊은 아주 총망 받는 신약학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부활이 illusion이다 망상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불쌍하지요.

자! 이 무덤을 지킵니다.
이 부활예언을 알고, 시체를 훔쳐간 뒤에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더 큰일이 더 큰 소요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결국 빌라도에게 동의를 구하고 경비병을 통해서 무덤을 지키게 됩니다.
나쁜 뜻으로 무덤을 지키는 것과 좋은 뜻으로 예수님을 장사지내는 아리마대사람 요셉의 장사지냄, 무덤을 쓰는 일과 이 무덤을 지키는 이 두 가지 단계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와 일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을 우리한테 영원히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덤을 쓰고, 무덤을 지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에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죽음에서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 당신 자신의 부활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역사 그 자체에는 전혀 참여를 못하십니다.
이게 부활사건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당사자인 예수님은 죽음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에는 예수님은 전혀 참여를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백 퍼센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에 의해서 이 부활사건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간구 이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죽음 자체에 예수님은 있을 때에, 하나님아버지에 의해서 백 퍼센트 그분에 의해서만 부활사건은 이루어져 나타나게 됐다는 얘깁니다.

완전히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사건에서 배제되시는 거예요 배제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사건의 특징이고 이것이 만사해결의 비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백 퍼센트 이 땅의 모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조물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문제와 만사가 올바르게 형통하게 해결하는 길입니다.
백 퍼센트 하나님아버지의 역사이기 위해서는, 순도 100%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순도 100% 하나님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래야 기독교인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100% 순도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야만 기독교인의 삶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백 퍼센트 하나님의 뜻이 이 예수님의 부활사건에서처럼 나타나야, 그것이 곧 해결이 되는 것이고 형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잘 이루어진다!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형통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모든 문제를 만나고 모든 만사를 대할 때에 그것이 해결되는 비책은 무엇이냐?
1단계, 무덤을 쓰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내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죽어버려서 그 문제에 관심하고 있는 내 마음에 무덤을 쓰는 겁니다.
절대로 이 무덤이 쓰여 지기 전까지는 주님의 부활이 100% 하나님아버지의 역사이었던 것처럼, 100%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내 삶의 일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문제든지, 어떠한 소원이든지,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먼저 그 문제와 소원과 계획에 대한 내 마음에 무덤을 쓰세요.
마음이 죽어버려야 됩니다.
마음이 죽을 때,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에 대한 포기라든지 체념이라든지 아니면 몰이해라든지 무지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이래서 그 문제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함을 통해, 그 문제와 그 소원과 계획에 대한 내 마음의 무덤을 쓰세요.

그 다음에 무덤을 지킵니다.
무덤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염려하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돌을 물려내고 입구의 돌을 물려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가놓고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무덤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는데, 나쁜 뜻으로 지키는 이 무덤 지키기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100% 순도로 이루어지려면 전제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의 무덤을 쓰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죽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기간이 필요합니다, 죽어있는 기간이 필요해요.
사람이 활동하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있어야 활동장소를 확보하고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활동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무덤 쓴 그 죽은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고 다급한 경제문제 앞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잠깐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마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무덤을 헤치고 시체를 훔쳐가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다른 회사에서 하는 걸 보고 자극받고 '나는 이래도 되는가?', 다른 옆집의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 자식을 이렇게 교육시켜도 되겠는가?' 끊임없이 자극 받고 죽음의 무덤을 스스로 깨고 나오게끔 자극을 합니다.
가만히 죽어 있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할 것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를 해야지,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아무것도 안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입 벌리고 그러고 있느냐?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진인사대천명이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다~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어떤 문제든 내 마음이 빼앗겨지고 있고 내 마음이 쏠려지고 있는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무덤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내 마음이 자극 받아서 스스로 재활해 버리면 안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죽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확인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무덤을 쓰고, 그리고 그 무덤을 지켜 내야 됩니다.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도 자극 받아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무덤을 쓰고 지키고 있는 중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내가 경제 문제든 뭐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배우자 문제든, 결혼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세상에서 만나게 되서 내가 마음을 쓰는 게 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다못해 취미든지 뭐든 소원이든 계획이든 마음을 쓰는 것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무덤을 만드세요.
무덤을 써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고 무덤을 쓰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은 마음의 해방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놓임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무덤을 쓸 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해방된 마음은, 성령님에 의해서 천국으로 이끌려짐을 받습니다.
공중에 있는 우리 마음이 천국과 맞닿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아버지와 접하게 되요.
이게 바로 무덤을 쓰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있는 일이에요,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는 동안에.

이럴 때 하나님아버지를 만난 마음은, 이 세상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압도되던 마음의 상태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하늘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비행기를 타고가면서 아래 있는 산맥을 바라보면 성냥갑보다도 작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문제가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마음이 문제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 도달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이제 100% 순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0% 순도의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이 지점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 세상 문제에 대해 무덤을 씀을 통하여 마음이 해방됨을 얻고 하늘로 이끌려져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거기서 문제의 중압감과 생활고에 찌들었던 마음이 해방감과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고 평강을 얻은 뒤에, 그 다음에서라야 이제 내가 실제로 삶에서 접하고 있는 문제와 소원과 계획 등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평강의 지점에서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속에 당신의 뜻을 알려줘서 행동하게끔 하시고, 아니면 내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상황을 바꿔가기도 하시고, 100% 순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만사해결의 비책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껴안고 철야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문제에 매여 있는 마음에 무덤을 써 주세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무덤을 쓰고, 어느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처럼, 그 기간 동안 무덤을 지켜내야 됩니다, 죽은 자임을 꼭 명심하고 지켜내야 되요.
그 지키고 있는 동안에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로 올라가서, 문제에 억눌렸던 마음에 해방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거에요.
그 뒤로부터 이 세상의 역사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오순절 직전에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사건을 자기들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무덤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 죽은 거예요.
꼼짝을 안하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이 무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문을 열고 베드로가, 12사도가, 120문도가 나갈 때는, 완전히 다른 자들로서 부활해서 나간 겁니다, 완전히 부활해서.
그래서 교회는 무덤에서 시작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면, 꼭 '죽어라, 죽어라' 해 갖고 시작할 필요는 없지마는, 교회가 모이면 먼저 무덤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살고 있던 많~은 문제들을 안고 교인들이 오는데,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예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무덤을 쓰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지켜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권고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끊임없이 마음은 세상에 대해 무덤을 쓰고, 그 무덤이 지켜지면서 마음이 해방감을 느끼기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해방해서 이 세상에 대해 마음이 죽은 마음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쯤이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부활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나가서 100% 순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배가 디자인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개인으로라도, 하여간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는 내 마음에 무덤을 쓰고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순도 100%의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덤을 쓰고 지키는 것은 내용은 알았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실행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문제, 해당돼서 내 마음을 뺏고 있는 문제에, 마음에 무덤을 써버린다는 것, 그리고 지킨다는 것,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도 마음이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재활하지 않습니다.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재활하는 거예요, 그래선 안 된다는 거지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하는 기도,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사건이 끊임없이 나의 사건으로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든 소원과 계획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재현되는 그런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 내 마음에 무덤을 쓰고, 그 무덤을 지키는 일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무덤을 쓰고 지키는 것이 만사해결의 비책입니다.
책을 뒤지고, 사람을 찾고, 자문을 구하고, 상담하러 가고, 인맥을 찾고 이러지 마세요.
발품 팔고 이러지 마세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한 하는 것이지, 내가 쫓아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늘 말씀 드리지만, 돈 있다고 내가 원하는 소원과 계획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함정이고 수렁입니다, 수렁이에요.
돈 있습니다, 무엇을 사고 싶습니다.
그 사고 싶은 마음에 먼저 무덤을 쓰세요.
그리고 어떤 자극에 의해서도 그 사고 싶은 마음이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끝까지 유지하세요.
어느 때까지? 내 마음이 그 사고 싶은 것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겠다고 느낄 정도로 평강이임할 때까지 무덤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자식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어느 순간까지 무덤을 지키느냐?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주어질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의 무덤을 지키세요.
그러면 반드시 평강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100% 전달이 되고 인도가 될 것이고, 만약에 아~무 뜻도 전달이 안 된다, 평강만 주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문제, 그 일은 하나님의 뜻 중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게 형통이고 해결이라는 것을 기억 하시지요.
무덤을 쓰고 지키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께서 죽으셔서 장사 지내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이 지켜지는 이 모습 속에서,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비책을 얻습니다.

이 비책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